

시민은 왜 ‘적’이 됐나

광주와 이란의 공통적 양상



▲도청 앞 분수대에 모인 시민들 (출처: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국내외로 시민들은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경우가 많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 다양한 방법으로 시위에 나선다. 평화적이지만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확실하고 많은 인원으로 압도할 수 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계엄군을 몰아내기 위한 항쟁이 발생했다. 비폭력으로 진행됐던 시위에 계엄군은 과도한 진압을 시작했다.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을 향한 공격은 어떤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광주에서만 발생했던 일이 아니다. 비폭력이 왜 국가 폭력의 대상이 돼야 했는가

5·18 민주화운동

5월 17일, 전두환 정권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의결한 후 전국 대학에 계엄군을 투입했다. 영문도 모른 채 호남권 대학생 일부가 연행됐고 이 과정에서 사망자도 발생했다. 학생들은 계엄 확대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민주화 시위를 벌였다.

18일 오전, 전남대 정문에 모여든 학생들만 300여 명. 계엄군은 이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시작했고, 학생들은 흩어졌다. 이들이 학생을 비롯한 무고한 시민들까지 무분별하게 폭행하는 것을 본 광주 시민들은 분노를 느꼈으며 시위의 규모는 순식간에 확대됐다.

5·18 민주화운동은 열흘간 진행됐고 5천여 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신군부는 ‘자유’를 위해 투쟁한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가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이 새나가지 못하도록 언론을 억압했다.

국가가 시민을 고립시킨,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란의 시위

2025년 12월 말부터 이란에서는 경제난

을 극복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시위가 발생했다. 경제적 위기가 직접적인 계기였지만 이는 곧 정부에 맞서는 체제 변혁을 도모하는 운동으로 확대됐다.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으로 움직였으나 보안군은 금속 탄환이 장전된 소총과 산탄총으로 이들을 겨냥했다. 또한 최루 가스, 섬광수류탄 등의 무기가 사용됐다는 시민들의 증언은 보안군의 진압이 폭력적으로 진행됐음을 보여준다. 이란의 인권 단체 인권운동가통신(HRANA)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기준 최소 500여 명이 사망했다고 추정하며 실제로는 몇 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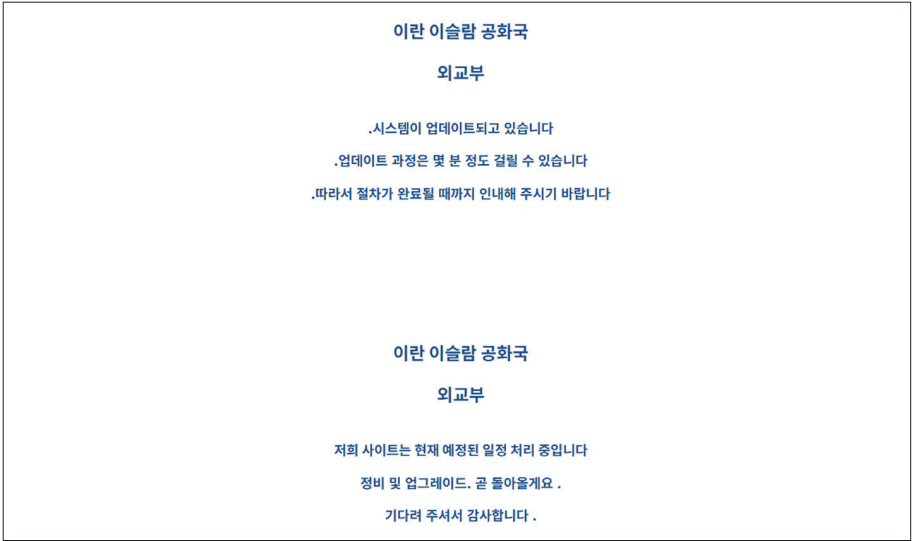
썰여있는 시신의 사이에서 가족을 찾는 모습은 1980년 광주의 모습과 닮아있다. 이러한 정황이 자국민들에 의해 영상으로 남겨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질 위기에 처하자 이란 정부는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했다. 일반 홈페이지는 물론 언론의 홈페이지까지 에러 코드로 표출되며 한국에서도 접속할 수 없게 됐다. 언론과 인터넷의 통제로 정확한 사망자 수도 집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시위에 참여하면 ‘사형’이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란 국민들은 시위를 멈추지 않으며, 각종 수단으로 영상을 내보내 상황을 알리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과 이란 시위

두 시위의 공통점은 국가가 국민을 학살한 사례로서 심각한 국가 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실탄을 장전한 총과 진압봉을 가진 군인이 투입되고, 지나가던 사람까지 잡아 폭행하는 등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 잔인한 방식을 앞세워 시위를 중단하려 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이란의 시위대 학살은 ‘요구’로 시작했다. 계엄을 철폐하고 민주화



▲지난달 20일 기준 막힌 이란 외교부 사이트

를 위한 요구, 경제난을 극복하고 종교적 체제 변혁의 요구였다.

시민들은 국가에 요구하고 평화적인 시위를 도모했지만, 국가는 그들을 적으로 돌렸다. 전두환 정부가 광주 시민들을 폭도, 빨갱이로 선동한 것처럼 이란 정부는 시위를 진압하다 숨진 병력을 ‘순교자’라고 칭하며 이번 시위를 ‘폭동’이라고 언급했다. 시민이 적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두 시위는 군 병력이 과잉으로 진압했다는 것이 닮아있다.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으며 그들을 수용할 공간은 부족했다. 권리를 위해 싸웠으나, 당한 폭력과 사망 후에도 수습되지 않은 사실은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반복되는 구조

시대와 국경을 막론하고 왜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국가가 강경 대응을 하는 경우는 ▲질서 및 안전 유지 ▲공공의 안전 ▲국가 안보 보호 등이 있다. 5·18 민주화운동 및 이란 시위 모두에서 국가는 시민의 ‘요구’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고, 이 과정에서 시민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다. 비폭력으로 시작한 시위는 폭동으로 규정되며 국가가 강경 대응을 하게 되는 명분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대응은 단순히 시위의 중단과 시민의 해산을 도모함에 그치지 않는다. 시민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한다. 더 이상의 저항할 의지를 꺾기 위함이다. 여기에 언론 통제까지 이뤄지면 시위는 더 축소되고 왜곡될 수 있다.

언론 통제의 이유

5·18 민주화운동에서는 권력이 언론을 장

악하고 신문을 검열하자 외국인 기자 힌츠 페터가 목숨을 걸고 취재해 세상에 알렸다. 이란은 인터넷을 통제당했지만, 인터넷 우회와 외국에 사는 이란계 사람들을 통해 이란 내 사건이 SNS로 전파되고 있다.

시위가 발생했을 뿐인데 언론은 왜 통제의 대상이 될까

언론이 통제된다는 것은 ‘기록되지 않는 것’이다. 알려지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고, 기억되지 못하면 쉽게 왜곡된다. 이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만든다. 정보의 악화로 여론의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 국가는 권력을 내세우며 더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언론의 통제는 물리적 폭력과 다른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다.

정보의 전파 속도가 빠른 시대에서도 인터넷의 차단과 검열은 무시할 수 없는 수단이다. 기술의 발전에도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는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언론을 통제한다는 것은 결국 진실을 묻는 행위다.

시민이 적이 되는 순간은 그들이 무기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국가가 이들을 위협의 존재로 인식하면서부터 시민은 적이 된다. 이런 구조가 지속되면 자유는 억압되고 비폭력은 폭력으로 전환된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반복되는 순간 다시 상기하며 극복해 간다. 결국 재발의 방지는 기억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기록과 공유를 통해 기억할 수 있다.

기록하고 드러내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실정을 파악하고 다양한 사건을 접한다. 많은 이들이 알게 되면 힘이란 쉽지 않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잊지 않는 것이다. 시민이 다시 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2026학년도 총학생회 연합출범식 시행

지난달 7일 해오름관에서 총학생회 연합출범식을 시행했다.

연합출범식에는 ▲제37대 총학생회 ‘시그널(Cgnal)’ ▲총동아리연합회 ‘하나’ ▲경상대학 ‘그늘’ 학생회 ▲공과대학 ‘VECTOR’ 학생회 ▲글로벌인문대학 ‘SYNERGY’ 학생회 ▲미래사회융합대학 ‘퍼클’ 학생회 ▲미술대학 ‘온결’ 학생회 ▲체육대학 ‘바람’ 학생회 ▲법사회대학 ‘SEE:D’ 학생회 ▲사범대학 ‘청명’ 학생회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비상대책위원회 ▲IT융합대학 ‘WITH’ 학생회 ▲홍보대사 ‘푸른나래’ ▲118 ROTC가



▲2026 조선대학교 제39대 총학생회 연합출범식 커팅식

참여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춘성 총장과 정홍용 교수평의회 의장, 양고승 직원 노동조합 위원장 등 대학 인사가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특히 김춘성 총장은 준비된 축사를 대신하여 총학생회의 이름인 ‘시그널’로 깜짝 삼행시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총장이 전한 삼행시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시: 시그널과 함께 조선대학교 2만 학우

그: 그 어떤 어려운 장벽도 헤치고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널: 널(넙)은 세상에 외쳐봅시

다. 시그널!

이후 각 학생회의 출범 행진 및 소개식을 가지며 제39대 총학생회 시그널은 “학생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명확한 결과로 증명하는 학생회가 되겠다”라는 다짐을 밝혔다. 공연은 태권도학과 시범단과 공연예술 무용학과 의 축하공연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총학생회는 시그널이라는 기치에 맞춰 어떻게 학우들의 목소리를 신호로 울리고 학교에 어떤 변화를 이끌게 될지 학우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왕태운 수습기자

xodns0607@chosun.ac.kr

우리 대학 대동제 ‘GRACIA’ 관심 속 개최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간 개최된 우리 대학 대동제 ‘GRACIA’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공과대학 축제로 시작한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대동제가 처음을 장식하며, 재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GRACIA’는 우리 대학 학생들이 주도하는 대표축제로,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지역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열린 축제이다. 우리 대학 대운동장 일대에서 진행됐고, 재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많은 지역민의 참

여도 이어졌다.

작년 화려했던 라인업에 이어, 올해도 초청 아티스트는 큰 환호를 받았다. 첫째날에는 ▲헤이즈 ▲크러쉬 ▲엔플라잉이 개막 무대를 열었는데, 특히 엔플라잉은 최근 ‘Flashback’이 역주행하며 인기를 얻고 있어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둘째 날에는 ▲트리플에스 ▲비비 그리고 작년 축제에서도 큰 호응 받았던 ▲잔나비가 무대를 채웠다. 마지막 날은 ▲리도어 ▲키키 ▲나우아임영(NOWIMYOUNG) ▲HAON ▲

Sik-K의 무대로, 힙합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인기가 높아진 아티스트들이 ‘GRACIA’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작년까지는 단과대학별로 소규모 축제가 진행됐던 반면 올해는 제39대 ‘시그널(Cgnal)’ 총학생회의 공약으로 단과대학 축제가 통합돼 다가오는 가을에 대동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진유철 수습기자

wlsdbcjfgus@naver.com

5·18 최후항쟁지 옛 전남도청, 이달 18일 정식 개관



▲시민군 복장을 재현한 본관 2층 기획관리실장실의 모습 (출처: 무등일보)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이 2년 5개월간의 복원 공사를 마치고 이달 18일 정식 개관한다. 전남도청은 건립 이후 70년 이상 전라남도의 행정적

중심이 된 곳이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이자 시민군의 심장부로 활용된 전남 지역 근·현대의 역사적 장소이다.

옛 전남도청의 복원은 2005년 전남도청 이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성 과정에서 훼손된 건물을 되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추진됐다. 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총 487억 원을 투입해 2023년 공사를 시작했고, 올해 1월 준공했다.

이 사업은 단순 외형 복구를 넘어 공간의 기능과 동선, 사용 흔적 등 당시의 현장을 최대한 고증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의 ▲탄흔 ▲내부 구조 ▲집기 배치 등을 원형에 가깝게 재현해 역사적 장소로서의 가치를 살렸다.

이를 위해 본관을 비롯해 ▲전남도경찰국 본관 ▲민원실 ▲도청회의실 ▲상무관 ▲별관 등 총 6개의 핵심 공간을 위주로 복원을 시행했다. 각 공간은 항쟁의 주요 장면과 역할을 중심으로 전시가 구성됐다.

본관 1층에는 총탄 자국과 함께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물이

배치됐고, 방송실에서는 최후 항쟁의 호소 방송을 재구성한 음성이 재생됐다. 또한, 2층에는 외신 기자들의 취재 기록과 사진, 시민수습대책위원회와 관련된 자료 등이 전시돼 국제 사회 등 외부에 비친 5·18 민주항쟁의 모습을 보여준다. 상무관은 당시에 희생자들의 시신 임시 안치 장소라는 점을 반영해 추모 공간으로 조성됐다.

전시 콘텐츠는 ▲국가기록원 ▲5·18기록관 ▲언론 자료 ▲생존자 증언 ▲영상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자료와 음향 효과 등을 활용한 몰입형 전시도 구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완성된 복원 사업 후 열린 임시 개관에서, 추모 공간 부족이나 전시 내용의 정확성 등과 관련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의견을 반영해 수정 과정을 진행 중이다.

옛 전남도청의 운영 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박시연 수습기자

0128sieon@naver.com

장미로 다시 피어난 캠퍼스

우리 대학 2026 장미주간 행사 개최



▲우리 대학 장미원의 모습

캠퍼스를 가득 채웠던 분홍빛 벚꽃이 지고, 어느덧 붉은 장미가 교정을 물들이고 있다. 우리 대학

를 자랑하는 우리 대학 장미원은 대운동장의 왼편, 테니스장과 의과대학 사이에 자리한다. 다양한

은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교내 장미원 일대에서 행사를 ‘2026 개교 80주년 기념 장미주간 무한 번째 장미’라는 이름으로 개최한다.

약 8천㎡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 대학 장미원은 대운동장의 왼편, 테니스장과 의과대학 사이에 자리한다. 다양한

품종의 장미가 식재되어 전남, 광주 지역 대표 명소로 손꼽힌다. 이곳은 대학 설립 정신과 지역민에 대한 보은의 의미가 담겨 있으며,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간으로 대학과 지역을 잇는 상징적 장소로 자리매김해 왔다.

행사 기간, 장미원 특별무대에서는 ▲버스킹 ▲태권도 ▲댄스 공연 ▲교가 편곡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14일 개막일에는 유명 가수들이 축하 공연을 선보이며 장미주간의 시작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장미주간 이후에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장미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한다. 새 학기 새롭게 사귄 친구, 사랑하는 연인 혹은 가족들과 함께 붉게 물든 장미꽃 사이를 거닐며 잠시 일상의 무게를 놓고, 이달의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보길 바란다.

신혜진 수습기자

tlsgpwlsl2345@naver.com

조대신문

www.chosun.ac.kr/chnews

1954년 9월 15일 창간

민족대학 건설에 이바지 / 대학언론 창달에 기여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발행인_총장 김춘성 / 편집인_겸 주간_지병근

편집국장_여정인 / 인쇄인_박만수

주 소_61453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길 146

편집실_062-230-6162 / FAX_062-234-3014 / 행정실_062-230-6166

관람에서 체험으로, 변화하는 트렌드

‘G-페스타’로 보는 문화 소비 트렌드 전환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축제나 전시가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중심으로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문화와 여가를 즐기려는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가볍게 시간을 보내기 위한 외출을 넘어서 계절적 특성에 맞게 추억을 쌓으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시점이기도 하다. 광주와 전남권에서도 이런 흐름에 맞춰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시민들과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중간고사의 고된 시간이 지나간 이 시점에 짧은 휴식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까운 지역 행사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축제·행사 트렌드의 변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문화 소비의 패턴이 ‘관람’에서 ‘체험’으로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관광이나 전시 관람 중심의 소비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활동을 더 크게 선호하는 분위기다. 기존 지역축제만 보더라도 ▲지역 특산물 판매 ▲초청 가수 공연 ▲먹거리 부스 등 축제보다는 관람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형식의 축제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일부 관광 지역에서 ‘바가지요금’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고, 이는 지역 축제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오히려 해당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을 때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더 높아지는 경향이 보인다. 참여형 프로그램이 확대됨에 따라 남녀노소 누구나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부터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행사들이 다양하게 진행된다. 이러한 형태는 광주의 행사에서도 볼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한 주요 문화공간에서는 상시 전시와 함께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특정 시기에만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 형식의 전시가 아니라, 언제든지 생각날 때 즐길 수 있게 우리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자리 잡은 모습이다. 이는 전시와 공연을 넘어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문화 활동을 하는 관람객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다.

G-페스타 광주 2026

이러한 점을 고려해 관람과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축제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광역시에는 축제·행사 통합 브랜드인 ‘G-페스타 광주 2026 봄·여름 시즌’을 ‘제4회 양동통맥축제’를 시작으로 개최했다. 이는 67일간 광주 곳곳에서 ▲‘미식+피크닉’ ▲‘인문+산책’ ▲‘에너지+체험’ 3가지 주제



▲‘G-페스타 광주 2026’ 홍보 포스터
(출처: 광주광역시 공식 블로그)



▲‘G-페스타’ 봄·여름 시즌 포스터 (출처: 서울신문)

로 총 12개의 테마형 축제를 펼친다.

‘미식+피크닉’ 주제의 축제에서는 봄날의 광주를 맞볼 수 있는 테마로, 광주의 전통시장 중 하나인 양동 전통시장 일원에서 지난달 23일부터 3일간 ‘양동통맥축제’를 진행했다. 이달 21일부터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6 광주식품대전’과 ‘2026 주류관광페스타’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인문+산책’ 주제의 행사에서는 참여자가 광주를 직접 걸어보며 광주에 담긴 역사를 직접 피부로 느껴볼 수 있는 기회다.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광주 국가유산 야행’을 시작으로 ▲이달 13일부터 3일간 ‘세계 인권도시포럼’ ▲16일부터 이틀간 ‘오월광주, 민주주의 대축제’ ▲23일 ‘제61회 광주시민의 날’ ▲23일 ‘제19회 광주세계인의 날’ ▲다음달 13일부터 이틀간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가 진행된다.

‘에너지+체험’ 주제에서는 이달 2일부터 3일, 그리고 어린이날에 ‘하우펀(HOW FUN) 12’ 행사가 어린이문화원 및 ACC 일대에서 진행됐다. 다음 달 4일부터 이틀간 ACC 및 5·18 민주광장 일대에서 ‘스트릿 컬처 페스타’가 진행된다. 다음 달 25일부터 4일간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제15회 광주

독립영화제’를 끝으로 67일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린다.

또한 광주를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 ‘G-맛집 큐레이션’이 제공된다. 큐레이션을 통해 광주광역시가 선정한 맛집 정보를 QR코드로 받을 수 있다. 광주를 직접 관광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 동선을 구성해 초밀착 투어가 가능하며, 축제 참여 인증 이벤트로 ‘G-페스타 리워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시 사전 할인 혜택을 누리려 광주에 있는 문화 공간에서 더욱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문화 시설

이러한 축제와 행사 이외에도 광주의 문화 시설은 시민들의 일상적인 문화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광주시립미술관과 광주예술의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주요 문화 공간에서는 이달을 맞이해 다양한 전시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꾸준히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시민들이 꾸준히 문화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비로소 ‘문화도시 광주’라는 이름이 현실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다만 아쉬운 점도 존재한다. 일부 문화 시설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접근성 부분에서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특정 계층이나 연령대에 편중된 콘텐츠 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프로그램 기획과 누구나 쉽게 접하기 쉬운 열린 문화 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방향성

문화 소비 패턴 변화에 초점을 맞춰 지역 행사 진행 방식도 함께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즐거운 축제에 직접 참여하며 친구와 연인, 가족들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다. 특히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과정은 관광객들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남기며 재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체험형 프로그램과 관람형 전시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번 ‘G-페스타 광주’ 행사와 같이 지역의 특색과 스토리를 담은 차별화된 콘텐츠가 더해진다면 관광을 넘어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지역의 문화적 가치도 상승할 것이며, 지역 경제와 공동체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때 지역 축제는 더욱 생동감 있는 문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마무리

중요한 점은 얼마나 많은 행사가 자주 열리느냐가 아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느냐에 달려 있다.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형성될 때, 지역 문화가 함께 성장하기 시작한다.

앞으로 광주의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확장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누리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그 변화는 빛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의 작은 변화들이 쌓여 광주가 누구에게나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



이란전쟁이 멈춰 세운 차량

지난 2월 개전한 이란 전쟁이 장기화에 돌입하자,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위기를 직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유 관련 자원 안보 위기 단계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고, 에너지 절약 조치로 차량 5부제를 시행했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주중 특정 요일에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기존 차량 5부제를 시행하던 공공 부문에서 정책을 확대해 기존 5부제의 적용을 받지 않던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전기 ▲수소 ▲유아 탑승 차량의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책 위반 시에는 경고가 취해지고 상습 위반자의 경우 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민간 부문의 경우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출퇴근 시간 조정도 함께



▲정문 앞 차량 5부제 시행 안내문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유 수급이 본격화하는 경계경보 발령 시에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등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다. 기후부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책이 시행된 현장에서는 다양

한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차량 5부제의 경우 하이브리드 차량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하이브리드 차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은 많았다. 국민이 힘을 모아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고 노력하면 큰 영향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시민도 있지만 과연 이런 정책을 통해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 시행착오도 많을 텐데 우려가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대중교통이 활성화돼 있는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의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이 가능하지만, 교통수단이 부족하거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에 지장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지난 3월 27일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했고 지난달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에너지 절약 현장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차량 5부제를 비롯해 냉난방 적정 온도 준수, 불필요한 전등 및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등 에너지 절약 수칙에 대한 안내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교직원과 학생에게 차량 5부제를 권고

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했다. 우리 대학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절약 문화를 정착시키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지속 가능한 캠퍼스 모델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 안보 위기는 단순히 이동의 불편을 넘어 사회의 인내심과 공동체 의식을 시험하고 있다. 비록 정책 시행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지만, 우리 대학이 보여준 선제적 캠페인은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에너지 위기 대응 조치는 자율적 참여 부분이 많지만, 사회의 노력이 모여 이 위기를 타개하기를 기대해 본다.

왕태운 수습기자

xodns0607@chosun.ac.kr

“다시 흐르는 오월의 정신” 제 46주년 5·18 민주 평화 대행진 개최



▲지난해 열린 제45주년 5·18 민주 평화 대행진 모습 (출처: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

5·18 민주 항쟁 기념행사 위원회가 이달 16일, 과거 오월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민주 평화 대행진을 개최한다. 이번 대행진은 제 46주년 5·18 민주항쟁 기념행사의 슬로건인 ‘오월의 꽃, 오늘의 빛’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특히 1980년 당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집결했던 ‘민족민주화성회’를 재현함으로써, 광주 시민과 각 단체, 초·중·고·대·대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들이 하나가 돼, 금남로에 집결하는 대행진으로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예정이다.

행진은 광주 시내 주요 거점에서 출발한 대열이 금남로를 가로질러 5·18 민주 광장 분수대에서 모이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주요 행진 경로는 두 코스로, 광주교에서 집결해 한미 소풍 사거리를 지나 전일빌딩 245로 가는 경로와 북동성당 옆 도로부터 대인광장을 지나 코스로 나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대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전남대와 우리 대학의 학생회 임원들도 각 학교에서 출발해 행진에 동참하며, 금남로4가역에서 시민 대열과 합류할 예정이다.

한편, 제46주년 5·18 민주항쟁 기념 주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민주 평화 대행진 외에도 ▲5·18 전국 휘호 대회 ▲세계 인권 도시포럼 ▲RUN 5·18-도청가는 길 ▲민주의 밤 등 오월의 정신을 기억하고 공유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향해 건넌 그날의 발걸음을 미래 세대인 우리들의 발걸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민주 평화 대행진은 단순한 행진을 넘어, 과거의 아픔을 다시 느껴볼 기회가 될 것이다.

신혜진 수습기자

tlsgpwl12345@naver.com

우리 대학 보건진료소, 학생 건강 관리 필요성 강조

우리 대학 보건진료소는 매년 3월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건강검진은 지난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됐으며, 참여 인원은 ▲신입생 ▲재학생 ▲대학원생 등 총 1,139명이다. 이 중 학부생이 1,126명으로, 참여율 6.3%를 기록해 작년보다 약 6.5% 하락했다.

검진 결과, 여러 주요 건강지표에서 관리의 필요성이

확인되며 학생 건강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재학생의 고혈압 비율은 2.5%, 고혈압 전 단계 비율은 48.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향후 고혈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또한, 비만 판정자는 28.6%, 총콜레스테롤 수치 이상자는 24.9%로 총콜레스테롤이 200mg/dL 이상일 경우 고지혈증으로 진단될 수 있다. 이 두 결과로 학생들의 대사성 건강지표 전반에서 주의가 요구됐다.

또한 B형간염 항체가 없는 학생의 비율이 67.9%로 확인되면서, 추가 예방접종이 필요한 대상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검진 대상이 19-23세의 젊은 청년층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더 주목된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건강할 것으로 기대되는 나이에 이미 불구하고 ▲혈압 ▲체중 ▲지질 수치 등에서 관리가 필요한 학생 비율이 높



▲보건소에서 검진을 기다리는 학생들 (출처: 보건진료소)

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고혈압, 비만 등은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지만,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과 같은 주요 만성질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 위험 요인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금연 ▲절주 ▲규칙적인 신체활동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B형간염과 같이 예방접종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접종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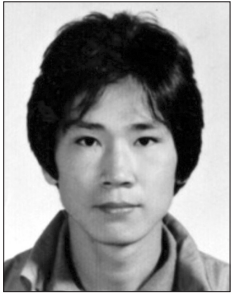
건강검진의 목적은 무증상 시기 질환의 조기 발견에 있다.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우리 대학 보건진료소는 교내 보건진료소 정기 검진을 권장한다.

박시언 수습기자

0128sieon@naver.com

■ 우리 대학 재학 중 의문사 이철규 열사(전자공학과)

민주를 향한 삶의 끝은 의문으로 남았다



이철규 열사

우리 대학 전자공학과 재학 중이던 '수배자' 이철규 열사의 사망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지 못한 채 의문을 남겼다. 그는 전라남도 장성 출생이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국가 폭력의 현장을 마주하고 민주화에 뜻을 갖게 돼 5·18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지속했다.

1985년 전두환 정권의 장기 집권과 미국의 내정간섭에 반대하는 '반외세반독재투쟁위원회' 활동으로 구속됐으며, 1987년 가석방 이후 우리 대학 총장 박철웅을 상대로 한 학원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이들을 몰아내기도 했다. 학원 민



▲이달 6일 진행된 이철규 열사 추모제

주화를 넘어 사회의 민주화까지 그의 넓은 활동 범위와 저항을 알 수 있다.

1989년 1월, 그는 우리 대학교지 「민주 조선」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창간사에 『미제 침략 100년사』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이 발표되자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선상에 올랐다. 검찰과 경찰,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등은 「민주 조선」 관련 전담반을 구성할 정도

로 이철규 열사를 포함한 교지 편집위원들을 주목했고, 특히 그에게는 수배와 함께 현상금과 1계급 특진이 걸렸다. 이는 그의 사기를 저해하고 집단을 와해하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의 마지막 행적은 1989년 5월 3일이다. 그는 택시를 타고 이동 중 무등산의 제4수원지 청암교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은 후 행방불명됐다. 일주일이 지난 5월 10일, 그는 검문 장소로부터 76m 정도 떨어진

수원지에서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시신의 얼굴은 변색이 심했고 왼쪽 눈은 돌출됐으며, 어깨 등 외관은 부어있었다. 단순 익사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민주인사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고, 부검을 요구했다.

당시 검찰 주도의 부검이 이뤄졌으며 참관인들은 위와 폐 안에 물이 별로 차 있지 않음을 보고 익사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경찰의 의견대로 익사 사고로 결론지었다. 이와 함께 그의 신체에 나타난 붓기와 상흔 또한 부패로 인한 흔적으로 남았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요청으로 일본 법의학자가 감정하기도 했다. 그는 이 씨(이철규 열사)의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인 것 같으나 몸의 상처로 봤을 때 이 전에 외부의 힘이 가해진 후 물에 던져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시간이 흘러 200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안기부가 개입한 정황을 발견해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국가기관의 비협조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민주화에 헌신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투쟁했던 이가 사인도 모른 채 의문사로 남았다. 방송국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으나 광주에서만 방영되는 데 그쳤다. 다양한 노력과 투쟁에도 끝내 정확하고 진실한 사인을 밝히지 못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은 그의 죽음이 비극으로 남게 했다.

그는 1989년 11월 4일야, 우리 대학에서 민주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른 후 망월동에 안장됐다. 아울러 2022년 행정안전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제35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이철규 열사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매년 5월 6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이철규 열사의 추모제가 시행된다.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젊은 청년은 자신의 죽음에서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없었으며, 그 실체도 규명되지 못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여정인 기자

duwjddls1022@naver.com

■ 남동성당 김성용 주임신부

“분노보다 슬픔이”, 전국에 퍼진 광주의 목소리

5·18 민주화운동 당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광주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던 인물, 김성용 신부를 소개한다.

김성용 신부는 서울 가톨릭 대학을 졸업한 이후 나주성당에서 보좌신부, 담양성당 주임신부를 거쳐 1980년 5월 당시에는 남동성당의 주임신부를 맡고 있었다. 남동성당은 당시 광주의 도심에 자리 잡고 있어,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이후 종교인들과 지역 인사들이 모여 대책 회의를 진행했고, 이는 남동성당 중심의 수습대책위원회의 구성으로 이어졌다.

기존의 시민수습대책위원회는 계엄군과의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로 광주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신부는 5월 23일 수습대책위원회에 합류하였고, 새롭게 결성된 시민수습대책위원회에서 시민들과 활동하며 대변인 역할을 맡게 됐다.

5월 25일, 수습대책위원회에서는 비극적 상황에 있어서 수습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이 회의에서는 김성용 신부의 제안이 만



▲ 1980년 5월 22일 도청회의실 안 수습대책위원회 모습
(출처: 광주 남동 5·18 기념성당 네이버 카페)

장일치로 결의됐다. 결의된 내용은 ▲금번 사태는 정부의 과오로써 가져온 것을 인정해야 한다 ▲사죄하고 용서를 청해야 한다 ▲여하한 보복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모든 피해는 국가가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5월 26일에는 김성용 신부와 수습위원회 사람들은 마지막 협상을 위한 ‘죽음의 행진’을 시작했다. 계엄군과 협상하기 위해서 약 4km의 거리를 행진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과 외국인 기자들이 동참했다. 이에 군인들은 보도

를 차단하고 시민들을 향해 발포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부사령관 김 소장은 협상 제의를 받아들였고, 김성용 신부는 현 사태의 무조건 수습을 위한 5개의 항목 요구를 제시했다. 요구 내용은 ▲수습을 위한 시간 요구 ▲전차 이동에 대한 사과 ▲군의 광주 시내 진입 반대 ▲경찰의 치안 담당 ▲보도로 화해 호소 방법 지양이다.

하지만 계엄군의 완고한 태도로 협상은 결렬됐다. 협상 결렬 이후 김 신부는 광주의 상황을 알려야 함을 느끼며 광주를 벗어나 서울



▲광주 남동 5·18 기념성당 전경

로 갔다. 광주의 실상은 그가 가져온 광주의 상황을 녹음한 테이프를 통해 김수환 추기경에게 보고됐고, 전국 성당에 ‘분노보다 슬픔이’라는 제목의 광주 상황 보고서가 테이프와 함께 배포됐다. 이는 광주의 상황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

5·18 민주화운동이 끝난 직후 김 신부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다. 그는 1980년 6월 14일 보안사에 잡힌 출두했고, 폭동 및 내란음모죄라는 명목으로 결국 고등 군사재판에서 7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년 2개월의 복역 후 출감한 뒤에도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을 치유하기 위해 헌신했다.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죽음의 행진’을 나섰던 사제의 용기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달을 맞아 김성용 신부가 작성한 ‘분노보다 슬픔이’를 읽어보며 당시 폭력 없이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통해 5·18을 바라보는 것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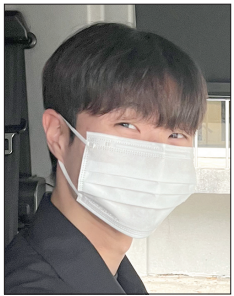
진유철 수습기자

wlsdbcfjgus@naver.com



우리 대학 셔틀버스 기사 이 서 진 기사

교내 도로 위, 학생들의 안전을 싣고 달리는 사람들



이 서 진 기사

넓은 우리 대학 캠퍼스를 누비는 셔틀버스는 학생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우리 대학은 부지면적이 약 4만㎡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면적의 약 30배에 달한다. 이를 도보로 이용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본관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계단을 대신해 학생들의 편의를 지켜주고 있는 이서진 기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버스 기사를 하게 된 계기

이 기사는 현재 운전직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원 자격 조건으로 1년 이상의 버스 운전 경력이 필요해서 작년 9월부터 시작했고, 올해 9월까지 운행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뒤이어 “학교 셔틀버스 기사를 하기 위해서

는 운전면허증 1종 대형과 버스 운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간대별 배차 및 이용 팁

이 기사는 셔틀버스 이용에 대한 한 가지 팁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은 1교시와 2교시 시작 전, 그리고 매시간 30분과 50분 사이”라며 “본관 행 버스를 여유롭게 이용하고 싶다면 설립 기념탑이나 미술대학 정류장에서 정각 혹은 매시간 20분대에 대기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현재 버스들은 원칙적으로 10분 간격으로 설립 기념탑에서 출발하지만, 혼잡한 시간대에는 예외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버스들의 출발 시간이 당겨져서 설립 기념탑 정류장에 버스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 설립 기념탑 정류장에서 본관 행 버스 공백에 관한 질문에 “인원이 빠르게 차는 시간대에는 미술대학에서 학생들이 탈 것을 고려해 10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출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밝혔다.

셔틀버스 기사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



▲버스 운행 전 차량을 점검하는 모습

그는 “학교 행사나 축제 기간에는 교내 차량 유입이 급증해 도로 상황이 평소보다 훨씬 복잡해져서 안전운전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전했다. 뒤이어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평소보다 더 서행하며 주의를 기울이지만, 젖은 우산을 들고 좁은 버스 안에 부대끼는 학생들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다”라며 학생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 운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학생

그는 “버스에 탑승하고 하차하

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인사를 하려고 노력한다. 저에게도 인사를 잘 받아주시고 잘 해주시는 학생들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조선대 학생분들 모두 친절하신 것 같아서 항상 감사드리고 학교생활 즐겁게 하시길 바란다”며 인사를 전했다.

자신의 인기를 체감하는지?

이 기사는 운행을 시작할 당시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매번 인사 잘해주시는 셔틀버스 기사님 만나면 학교 가는 길이 즐겁다’라거나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잘생긴 버

스 기사님 모습에 얼굴 붉는 것만으로도 절로 웃음이 난다’는 등의 게시글이 올라오며 ‘잘생긴 버스 기사님’으로 화제가 됐다.

이러한 인기를 체감하느냐는 질문에 기사님은 전혀 몰랐다고 속스러워하면서도, “그저 저의 일을 하고 있던 것뿐인데 학생분들께서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침마다 피곤한 기색으로 버스에 오르는 학생들을 보며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저로 인해 등곳길이 즐거워졌다는 말이 저에게 큰 응원이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주로 운행하는 본관 행 셔틀버스에서 마주친다면 반갑게 인사를 건네주면 좋겠다”며 “남은 기간 안전하고 즐거운 등곳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기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이 기사뿐만 아니라 셔틀버스를 이용하며 운전해 주시는 기사분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작은 실천이 확산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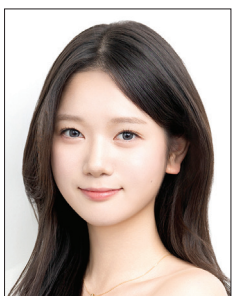
신혜진 수습기자

ttsqpwls12345@naver.com



글로벌 여행 커뮤니티 코플(KOPL) 운영 총괄 장 서 희 학우(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4)

“나다운 빛으로 반짝이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장 서 희 학우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4)

대학에 입학하고, 많은 신입생은 대학의 자유로움을 꿈꾸며 호기롭게 학교생활을 시작한다. 하지만 실상은 정보의 부족과 현실에 직면하면서 보다 많은 경험의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우리 대학 장서희 학우(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4)는 ‘나다운 삶’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현재 ‘코플(KOPL)’이라는 외국인 유학생 여행 커뮤니티에서 전라지부 운영 총괄을 맡고 있다.

코플(KOPL)은 외국인 유학생

과 한국 청년들이 소도시를 여행하며 교류하는 커뮤니티이다. 그는 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양대에 교류 수학을 갔을 당시 동아리 부스에서 코플을 처음 만나게 됐다. 그는 교류 수학 기간 코플 행사에 참여하면서 게스트로 교류 활동을 즐겼다.

하지만 커뮤니티가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아쉬움을 느꼈다. 그는 실제로 전남·전북 지역에도 매력적인 소도시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며, “전남·전북 지역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은 함께하기 힘들다는 점이 아쉽게 느껴졌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역시 계속 서울에 있을 수 없었기에 광주에도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었고, 마침 코플 운영진의 제안으로 전라지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작년 11월 화순 여행에서 광주 학생들과 함께 교류를 시도하면서 가능성을 실험했고, 올해 3월 코플 전라지부를 정식 런칭했다.



▲글로벌 여행 커뮤니티 코플(KOPL) 화순 여행 단체사진 (출처: 코플(KOPL) 제공)

현재 그는 전라 지역의 코넥터(한국인 운영진)를 이끌며, 여행 기획부터 홍보, 데이터 수집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한다. 최근 웰컴 파티에는 80여 명의 인원이 몰렸고, 공주와 화순으로 여행을 진행하며 전라권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과 소통하다 보면 ‘나’와 ‘우리 문화’가 무엇인지 알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라며 국제 교류 경험이 자신의 삶에 대해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의 연결을 이끌고, 청년들이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하며 자신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이런 마인드로 시작해야 뭐든 되더라고요” 그가 추천하는 것은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뭐든 시작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실행 태도는 대학교

1학년 때 참여했던 창업 동아리 ‘인액터스(Enactus)’에서 길러졌다. 이 활동을 통해 기획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풀어내면서 느끼는 ‘희열’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졸업을 앞둔 시점, 취업과 진로에 대한 걱정이 많을 법도 하지만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미래를 고민하며 힘들어하기보다, 스스로 추구하는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다 보면 미래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 믿어요”라고 이야기하며 “더 많은 경험을 통해 나에 대해 알아가고 싶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장서희 학우는 “모든 사람이 나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무지갯빛으로 빛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진유철 수습기자

wlsdbcfjgus@naver.com

영화 <화려한 휴가>

평범한 사람들의 평생 잊지 못 할 열흘간의 기억

‘화려하다’와 ‘휴가’라는 단어만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가. 아마 대부분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의 장면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휴가’라는 낭만적인 말 뒤에는 잔혹한 1980년 5월 광주주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

영화 <화려한 휴가>는 당시의 이면을 정면으로 보여준다. 어느 때와 같이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 앞에 무장 군인들이 나타났고, 애국가와 함께 시민들을 향해 총격과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시작이었다. 이 영화는 계엄군을

상대로 광주 시민들이 총을 들고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시민들의 관점에서 그날의 기억을 되돌아볼 수 있다.

영화 <화려한 휴가>가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역사적 사건을 평범한 시민들의 시선에서 풀어냈기 때문이다. 택시 기사, 간호사, 학생 등 각기 다른 일상을 살아가던 인물들은 어느 날 갑작스러운 무력 상황의 한가운데에 놓이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 연대하는 모습이 인상깊다. 결국 총을 들고 맞서는 장면조차 ‘투쟁’이 아닌 ‘생존’과 ‘연대’의 의미로 다가오며, 이는 관객으로 하여금 그날의 광

주를 보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우리는 폭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영화 속 마지막 전남도청을 지키던 신애가 확성기를 들고 울부짖는 대사다. 이는 곧 영화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대사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에게 쏟아진 왜곡된 시선에 저항하는 상징성을 드러낸다.

영화의 결말에서 시민군이 도청에 끝까지 남아 저항하기로 내린 결정은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패배할 것을 알면서도 지켜야만 했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메시지를

를 상징한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희생된 사람들과 살아남은 이들이 함께 찍은 환상 속의 단체 사진 표현은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공동체의 연대’를 의미하며 관객들에게 강한 여운을 남긴다.

2007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약 730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중 가장 성공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단순한 흥행 성과가 아닌, 역사를 대중적으로 알리고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우리를 잊지 말아 달라’는 외침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사와



▲영화 <화려한 휴가> 포스터
(출처: 네이버 영화)

기억의 의미를 다시 묻고 있다. 이 영화를 아직 접하지 못했다면 한번쯤 감상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남대희 수습기자
ndaeh0823@chosun.ac.kr

도서 <봄날>

소설로 기록하다

이달의 광주는 1980년 5월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로 가득 찬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과 추모에만 초점을 두며 역사 자체는 모르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역사는 먼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임철우의 <봄날>은 총 5권으로 이뤄져 있으며 1980년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타임라인별로 구성한 장편소설이다. 본격적인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상세하게 구성해 5·18 민주화운동의 경위와 결과를 알 수 있게 하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질문을 던진다.

소설은 ▲대학생 ▲기자 ▲계엄군 등의 5·18민주화운동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인물의 관점에서 당시 상황을 서술하고 감정을 풀어낸다. 주요 시점 인물은 시민, 계엄군, 대학생으로 이뤄진 한 가족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각 입장을 대표하며 그 비극을 극대화한다.

소설을 읽을수록 내용에 이입할 수 있었다. 사투리와 욕이 섞인 인물들의 말은 그들이 표출하는 설움을 와닿게 했고 직설적인 비유와 표현은 그날의 상황을 겪지 않았음에도 겪은 것처럼 느끼게 했다. 특히 부상을 당한 시민이나 시체의 모습을 나타낼 때의 상세한

표현은 소설 속 이미지를 더욱 쉽게 떠올리게 했다. 자세한 표현 덕에 읽기 힘들 수 있지만 그만큼 감정을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 소설은 창작보다 현실을 중심으로 다뤘다는 점이 소설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한다. ▲소설 속 선언서 ▲기자의 메모 ▲각종 시민들이 하는 말 등 모든 요소가 작가가 독자에게 기억을 전하고 진상을 밝히는 것으로 느껴졌다. 소설 자체가 하나의 ‘기록’인 셈이다.

우리는 5·18 민주화운동을 흔히 ‘기억해야 할 역사’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억은 추모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해

하려는 노력이 이뤄질 때 비로소 지속된다. <봄날>은 단순히 읽고 지나가는 소설이 아니라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알고 그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소설이다.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된 후 각종 매체에서 혼란의 상황을 중계할 당시, 광주는 어느 곳보다도 두려움에 떨었다. 계엄 선포가 내려지자, 5·18 민주화운동을 겪었던 사람들은 근처 병원에 자신을 숨겨달라며 몰려들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다음 날 사태를 언급하며 눈물을 보인 교수님도 계셨다.

광주에게 5·18 민주화운동은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는 이 기억을



▲임철우 <봄날>
(출처: 네이버 도서)

지속해야 한다. 이달을 맞아 <봄날>을 읽고, 1980년 5월의 순간을 한번 느껴보는 것을 추천한다.

여정인 기자
duwjddls1022@naver.com

만화 <26년>

그날의 아픔은 계속된다

가정의 달인 만큼 다양한 기념일이 있는 5월에서 광주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날짜가 있다. 바로 ‘5월 18일’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광역시(당시 전라남도 광주시) 및 인근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다.

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와 드라마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하는 만화, 강풀 작가의 ‘26년’이다.

당시 계엄군이던 청년이 죄책감을 지닌 채 살아가다, 26년이 지난 후에 5·18 희생자들의 자녀들을 모아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암

살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이야기이다.

암살 계획에 동참하는 희생자의 자녀들은 ▲정신이 이상해진 어머니를 둔 조직폭력배 ▲아내를 잃은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린 아버지와 단둘이 살며 복수심을 키워온 사격 선수 ▲부모님을 잃은 조카가 ▲국어 교사 부부 ▲경찰관 등 모두 후유증 및 트라우마로 평생 고통 속에 살아온 인물들이다.

또한, 간첩을 처리하라는 명령에 복종했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을 깨달아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던 당시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독자들에게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이렇듯 인물을 향한 복수극으로 풀어낸 「26년」은 피해자들에게 감정적으로 이입하며, 역사 속 개인들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작품이다.

역사 인식에서 감수성은 중요한 부분이다.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에서 바라보며, 차별과 불균형, 불리함 등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고, 이를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고 미래를 올바르게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만화가 우리에게 그때의 광주

를 잊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처럼 말이다.

이야기 속 시민군들은 다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였다. 가정을 두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자리를 지켰다. 그들의 희생이 모여 현재 우리가 걷고 있는 평화로운 길이 됐다는 것을 잊지 말자.

「26년」은 이후 2012년 11월 29일 영화로 개봉했다. 영화는 당시 흥행하던 <늑대소년>(감독 조성희, 2012)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다가오는 5·18일에는 「26년」을 통해, 더 깊이 그 시기를 공감하고, 나아가 현재의 세상을 올바르게



▲만화 <26년> (출처: 교보문고)

인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

박시언 수습기자
0128sieon@naver.com

사라져 가는 학생자치 속에서, 대학 민주주의는 ‘풍전등화’

지난달 13일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주요 대학 18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국외대 ▲동국대 ▲숙명여대 ▲한양대 ▲국민대 무려 8곳에서 총학생회장이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SKY’ 대학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연세대는 입후보자 부재와 당선 무효 사태가 겹치며 보궐선거가 무산됐고, 서울대와 고려대 역시 후보 부재 및 자격 박탈로 인해 가을까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가 불가피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먼 얘기가 아니다. 우리 대학 역시 학생회 선거 때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개표 기준인 50%를 채울 때까지 선거 기간이 무기한 연장되는 풍경도 심심찮게 보였다.

‘비상’이 실상이 된 캠퍼스, 식어가는 학생 자치의 열기

문제는 비대위 체제의 구조적 한계다. 비대위는 보궐선거 전까지만 운영되는 한시적 조직이라는 특성상 장기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며 당면한 과제에 대응하는 운영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는 총학생회의 존재감을 ‘축제 기획’ 수준으로 격하시켰다. 각 대학 총학생회 간의 연례인섭의 경쟁은 치열해졌지만, 정작 학생들의 권익을 위한 정책적 대응은 뒷전이였다. 이는 다시 학생회비 납부를 저하와 학생 자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 대학, ‘학생 자치 공백’의 현상

우리 대학의 상황은 더 구체적이다. 자연과학공공안전보건대학(이하 자보안)은 이번 달 출범식에서 정식 학생회가 아닌 비대위 체제로 출범했다. 강선황(경찰행정·21) 자보안 비대위원장은 “25학년도 당시 입후보자가 있어 등록을 신청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적격 판단으로 최종 후보자가 없게 되며 선거 자체가 무산됐다”고 경위를 밝혔다. 결국 자보안은 자치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비대위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강 위원장은 비대위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대표성과 책임감 사이의 균형’을 꼽았다. “비대위는 학생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조직이 아니다 보니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게 된다”며, “정식 학생회라면 정기적 계획 아래 추진했을 사업들도 임시 운영이라는 특성상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필수 업무 유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비대위 체제에 있어서 중장기 프로젝트보다는 당장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사 지원 ▲복지 ▲소통 창구 운영 등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비대위는 완전한 형태의 학생회는 아니지만, 학생 사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기능을 이어가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학우 여러분의 불편을 줄이고 필요한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회의 존재 이유는 결국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불편한 점이나 필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

◇ 총학생회 못 꾸린 서울 주요 대학

대학	상황	이유
서울대	재선거 무산	후보 불출마
연세대	재선거 무산	후보 불출마
고려대	재선거 무산	후보 불출마
한양대	선거 무산	투표율 저조
한국외대	재선거	절차 진행중
동국대	보궐선거 무산	투표율 저조
국민대	보궐선거 무산	후보 불출마
숙명여대	보궐선거 무산	후보 불출마

(출처: 한국경제신문)

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의견 보내주세요. 더 나은 학생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학우들에게 전했다.

학생 자치 공백 속 무방비 상태의 학우들

학생 자치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우들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취재진이 만난 자보안 소속 김 학우는 “정부 전달의 부재가 가장 큰 불편”이라며 “비대위가 구체적으로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없다”라고 전했다. 또한 “작년 사업들의 연속성이 끊겨 행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학생 자치 활동의 단절이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식 학생회의 부재로 인해 학교 측과의 소통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을 문제로 거론했다.

학생 자치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

학생 자치가 외면받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대학 문화의 파편화와 스펙 위주의 사회 구조가 꼽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속감이 희박해진 상태에서 김수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무전공 입학 확대와 N수생 비중 증가로 인해 학생들이 특정 대학이나 학과에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장기화한 취업난은 학생들을 공적 영역보다는 개인의 ‘스펙’ 쌓기로 내몰았다.

강 위원장 역시 근본적 문제점으로 “학생들의 학생 사회 참여율 저하와 학생회의 필요성을 직접 체감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며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라며 결국 학생 사회의 참여와 공동체 의식의 약화를 근본적 원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총학생회 성패와 역량을 판단하는 데 있어 축제가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아티스트 라인업과 축제 규모가 판단의 기준이 되면서,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이목이 쏠리는 축제에 집중적 예산 투입과 행정력을 쏟게 된다. 결과적으로 교육 환경 개선이나 학생 권익 증진과 같은 본질적인 학생 자치활동은 뒷전으로 밀려나며 학생 자치의 힘은 점차 잃어가고 있다.

다시 올 학생 자치를 위하여

이재욱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학이 스펙 경쟁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공적 영역에 대한 관심이 약해졌고,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대학은 민주 질서의 기초를 배우고 불의에 목소리를 내는 ‘작은 국가’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현재의 낮은 투표율과 비대위 체제는 학생 자치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음을 차감해 보여준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학의 격언처럼, 우리가 자치를 외면할 때 우리의 권익은 가장 먼저 침식된다. 학생회는 ‘자치 효능감’을 결과로 증명해야 하며, 대학 본부 역시 학생을 운영의 실질적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멈춰 선 자치의 시계를 다시 돌리는 것은 거창한 과정이 아니다. 학생회의 활동과 학생회비 운영 등에 관심을 두고 다시 돌아올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작은 참여가 다시 돌아올 학생 자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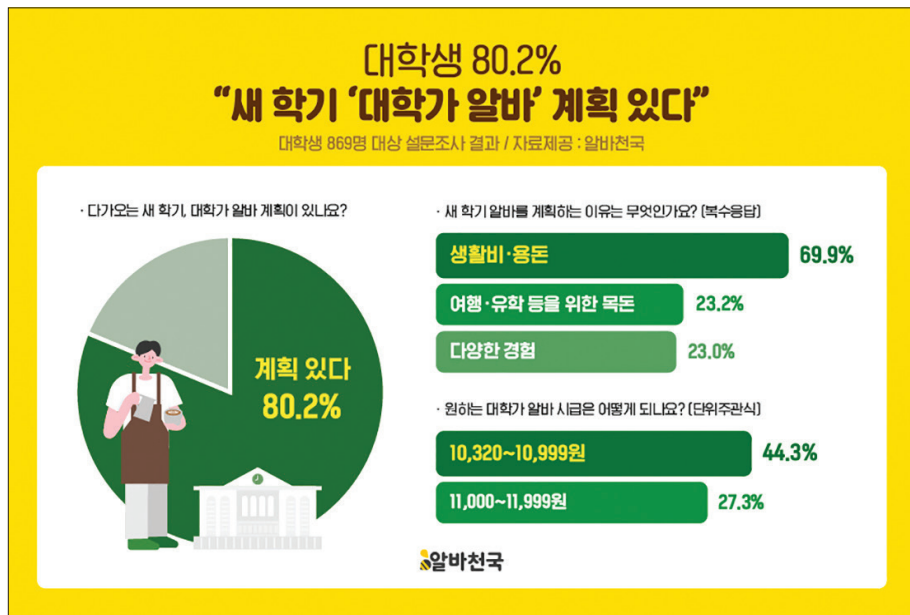
왕태운 수습기자

xodns0607@chosun.ac.kr



근로계약서 작성 하셨나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여전한 현실



▲아르바이트 계획을 묻는 설문조사 그래프(출처: 알바천국)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서 대학생 8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26년 아르바이트 계획을 묻는 질문에 80.2%가 “올해 아르바이트 계획 있다”에 응답했다. 이처럼 많은 대학생들은 ▲생활비·용돈 마련 ▲학비를 내기 위해 ▲경험 등 다양한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인 대학생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경험이 적을뿐더러 관련된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지원 등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무단 음료 취식을 이유로 알바생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폭언을 한 점주가 이슈가 됐다. 해당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이 잘 모른다는 점,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점을 이용하여 부당 행위를 했다. 이후 고용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진행됐고, 근로계약서에서도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사실 또한 확인됐다.

지켜지지 못하는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꼭 작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각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성하더라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거나 명시된 조건과 다른 경우도 많다. 우리 대학 이 학우(정치외교학과·4)는 총 두 번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데 한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한번은 작성했지만, 명시된 조건과 달랐다고 이야기한다.

이 학우는 현재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일주일에 약 22시간을 일하고 있지만, 주휴수당과 야간 수당은 물론,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 대학 최 학우(식품영양학과·4)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교육을 명목으로 약

한 달간 근무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고, 점주의 필요에 따라 시간이 자주 조정됐다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이 존재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있다.

쪼개기 고용의 일반화

쪼개기 고용이란 주휴수당·퇴직금 등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 시간을 쪼개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를 여러 명 고용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5년 86만 6,000명에서 2025년 177만 9,000명으로 10년간 91만 3,000명(105%)이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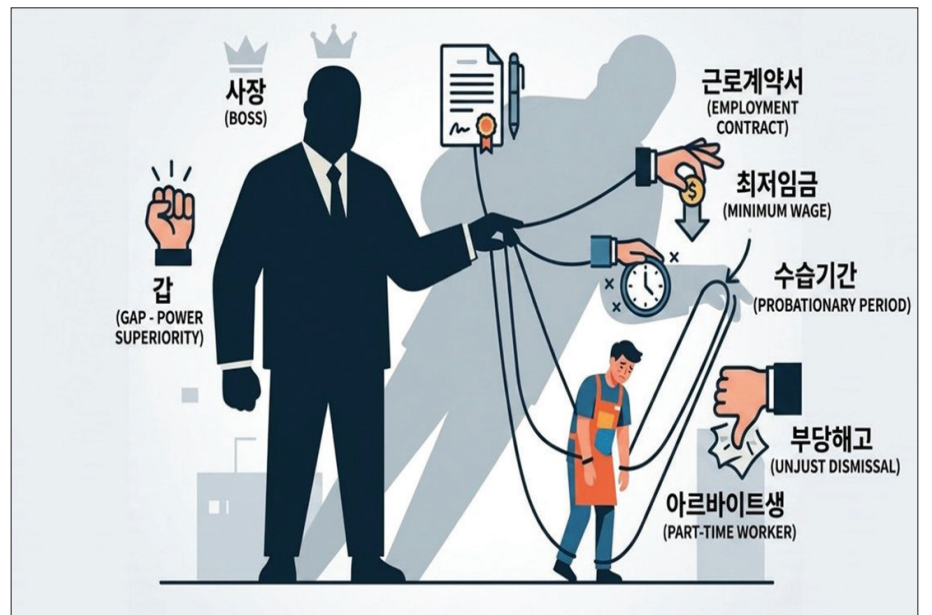
실제로 우리 대학 후문의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더라도 ▲주 4일 3시간 ▲일 2시간 (요일 협의) ▲주 2일 5시간 등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고용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고용 형태는 대부분 짧은 근무시간으로 비효율적이며, 특히 학업과 일을 동시에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런 쪼개기 현상이 고용주로서도 좋은 것만은 아니다. 고용주 역시 경기 불황과 인건비 부담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짧은 근무 시간으로 근무자의 숙련도 미숙으로 노동의 효율도 떨어지고 직원 관리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받아들여지는 불합리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불합리한 상황을 겪더라도 왜 용인하고 하는 경우가 많을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의 대부분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하기에 시간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더 크게 가지고 있다. 사실상 고정된 강의 시간표에 있어서 사이사이에 끼워서 조정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정적이다. 그렇기에 그만두었을 때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 또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 학우는 “알바를 옮기고 싶지만, 학기 중에는 시간표에 맞는 시간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아르바이트 환경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 (출처: 오마이뉴스)

고 이야기한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 편의점 직종의 최저임금 미지급과 같은 상황이 사실상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되는 경우도 많다. 오히려 이 세 가지 중 올바르게 받는 것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다.

이렇듯 자주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당 행위를 신고하게 된다면 해당 상권 내에서 일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근로계약서는 권리를 보증하는 것 아니라,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

고용주의 입장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먼저 최저시급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상황과 경기의 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매출 감소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 폐업 증가도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휴수당 지급 ▲퇴직금 지급 ▲기타 수당 지급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이 학우는 “편의점 점주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야간 편의점 특성상 할 일도 거의 없어서 점주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한다”고 일정 부분 공감하기도 했다.

또 이른바 근로자의 ‘무책임한 태도’ 역시 고용주를 방어적으로 나오게 만드는 원인이다. ▲하루 일하고 그만두기 ▲짧은 시간과 무단결근 ▲스마트폰 사용 ▲수동적 태도 등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근로자들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다 보니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초반에는 수습 기간 급여를 적용해서 주는 경우도 많아진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준수해야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현재 제도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없다는 지

적도 존재한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무엇이 문제인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생의 노동을 ‘정당한 근로’가 아닌 ‘사회 경험’이나 ‘용돈 벌이’로 평가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다. 이런 노동의 가치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져선 안 된다.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사회 초년생인 대학생들은 근로에 따른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가 부족하기에 점주에게 쉽게 휘둘리는 경우가 생기고, 모르고 용인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물론 고용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측면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불합리한 대우는 결과적으로 ‘받는 만큼만 일한다’는 태도와 무책임한 모습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실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무 시간 ▲급여 내역 ▲대화 녹음 ▲통화와 문자 내용 등을 그때 그때 기록해 남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고, 고객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도 가능하다.

사회 초년생이기에 잘 모르는 것도 많고 불합리에 맞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인정받아야 한다. 그렇기에 ‘하우머치’, ‘알바천국’과 같은 플랫폼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찾아보면서 기본적인 노동 기준과 환경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진유철 수습기자

wlsdbcfjgus@naver.com

I 월가월부 I

과제에 AI를 사용해도 되는가?

생성형 AI의 발달에 따라 학습의 방식과 방향이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현대 대학생들에게 논문과 서적을 뒤적이는 수고를 덜어주는 효율적인 도구이지만, 동시에 스스로 사고하고 탐구할 기회를 뺏는 위험한 도구이기도 하다. 과연 현대 대학생들에게 과제에서 AI의 사용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할까? 올바른 AI의 사용 지점에 대한 찬성, 반대, 중립의 의견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왕태운 수습기자 xodns0607@chosun.ac.kr

AI 활용은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새로운 학습과정이다

최근 과제나 시험에 AI를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지가 화두에 올랐다.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활용 능력은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AI를 학문에 어떻게 정확히 활용하고 검증하는 것에 있다.

두 번째는 학습 효율의 극대화와 창의적 영역으로의 집중이다. 정보 취합과 같은 저차원적인 작업은 AI에게 맡기고, 인간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더욱 고차원적인 결론 도출에 집중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한

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새로운 학문의 정직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AI를 활용함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밝히고 그를 통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방식을 통해 학문의 정직성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인공지능은 부정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서 이용되는 미래이다. 인공지능을 도구화해 더 넓은 세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탐구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실천적인 교육의 발걸음이 될 것이다.

박시연 수습기자 0128sieon@naver.com

AI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기준과 태도가 필요하다

나는 과제에서 AI 사용에 대해 무조건 허용하거나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AI에게 완전히 과제를 대신 수행하게 할 경우, 과제를 통한 학습의 효과가 감소하고,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AI를 자료 탐색, 아이디어 정리, 문장 교정 등으로 보조 도구로 사용할 경우에는 과제의 완성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식이다.

따라서 AI는 보조 도구로써 활용하되, 결과물의 핵심 내용과 사고의 과정은 학생 자신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또한, 학교와 교수가 과제의 목적에 맞

는 올바른 AI 사용 범위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중앙대와 이화여대의 경우, 학습자와 교수자를 위한 AI 윤리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생성형 AI의 원리 이해를 위한 설명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듯 학교 측과 교수자 측, 그리고 학습자 측에서 올바른 사용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통해 AI 사용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학생들 역시 사용 여부를 투명하게 밝히고, 제시된 기준에 맞는 AI의 올바른 활용을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남대희 수습기자 ndaeh0823@chosun.ac.kr

AI가 대신하는 세상, 우리가 잃어가는 것들

최근 대학에서의 'ChatGPT', 'Gemini' 등 생성형 AI 사용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과제 수행에 있어서 학생들의 AI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AI가 발전하고 대중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제는 '좋은 결과물'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걸맞은 '과정' 역시 필요하다. 직접 자료를 조사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과정이 곧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AI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극단적으로 단축하거나 생략하게 만든다. 일각에서는 AI를 참고용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AI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결과물 자체를 만들어낸다. 일부 학생들은 그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공정성 문제로 이어진다. AI를 활용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서 결과물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 동일한 주제의 과제물을 만들었지만, AI의 사용 여부에 따라 성적이 달라진다면,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할 이유가 있을까. 대학 과제에서의 AI 사용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사용이 지속된다면, 대학에서 교육의 본질도 함께 흔들릴 것이다.



진유철의 안전한 사회를 위한 질문

세월호 참사 12주기, 안전한 사회는 어디까지 왔나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행사 모습(출처: 4·16 재단)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은 지난달 16일, 경기도 안산에서는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이 열렸고, 전남 진도군 참사 해역에서는 선상 추모식이 진행됐다.

광주에서도 추모의 모습은 이어졌다. 5·18민주광장에 광주 시민 분향소가 마련됐고, 노란 리본 조형물과 304명의 희생자 사진이 담긴 분향소 배경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지난 2024년, 전국 20~75세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리서치 연구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돼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64.3%는 “변화

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생명안전기본법은 5년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추모의 목소리와 함께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사건의 진상, 책임 회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다. 안전한 사회 그리고 회복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책임감 있는 행동과 안전과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진유철 수습기자

wlsdbcfjgus@naver.com



왕태운의 사회를 바라보다

우리 사회의 깊어진 갈등의 골



▲chat GPT가 그린 사회갈등 풍자화

요즘 들어 우리는 사회의 갈등을 빈번하게 접하고 그 갈등 한복판에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각자의 진영이라는 성벽 뒤에 숨어 비난과 선동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적 이념에서 시작된 균열은 젠더, 세대,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다층적인 갈등의 골로 번졌고, 그 깊이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메울 수 없을 만큼 넓어졌다.

이토록 갈등이 격화된 배경에는 기술의 발전이 놓여 있었다. 알고리즘은 우리를 거대한 확증편향에

가두고 나와 같은 목소리와 주장을 내세우는 공간에서 편견은 신념으로 굳어졌다. 다른 의견은 틀린 것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 치부된다.

이 깊은 골을 메우는 데 필요한 것은 작은 시선의 변화다. 상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서적 공감의 회복해야 한다. 무관심과 증오를 이겨내고 다시 온기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과제다.

왕태운 수습기자 xodns0607@chosun.ac.kr

같이 책 읽어요 “독서 토론 클럽”

혼자 읽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책을 읽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함께하는 독서의 즐거움을 더하고 토론을 통한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비교과 프로그램이 학내에서 운영된다. 팀별로 선정 도서를 읽고 주제를 정하여 토론 활동을 진행하며 지도교수가 월 1, 2회 토론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3월 더조아시스템을 통해 모집했으며, 무려 70명에 가까운 인원이 신청했다. 토론에 4회 이상 참여하면 장학금이 지급된다는 점도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내가 이 체험에 참여하게 된 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학금도 받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다. 또 사이비 종교가 독서 모임으로 위장해 포교 활동을 벌이는 사례가 있는데 학교 내 비교과 프로그램은 그런 우려 없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더 관심을 끌었다.

프로그램은 총 10회 모임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주 한 번씩 현재는 총 7회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읽은 책은 『청춘의 독서』와 『선량한 차별주의자』 두 권이다. 처음 청춘의 봄을 읽을 때만 해도 평소에 바빠다는 핑계로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임에서 만난 사람 중에는 나보다 훨씬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꾸준히 책



▲독서 토론 클럽 활동모습

을 완독해 오는 이들이 많았다. 그 모습들을 보며 평소 내가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독서를 미루던 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반성했다.

모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구성원의 다양성이었다. ▲의예과 ▲약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국어교육과 등 전혀 다르고 예상치 못한 전공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분야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책을 통해 나눴다. 학과 수업만 듣고 같은 과 친구들과만 어울리던 때에는 내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훨씬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다.

가장 최근에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둘러싼 토론이 제일 기억에 남았다. 이 책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사용하는 언어나 행동이 누군가를 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어낸다. 토론 자리에서 아동 센

터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던 참여자는 아이의 부모님이 조부모님이나 한부모 가정일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를 ‘부모님’이 아닌 ‘보호자’라고 불러야 했던 경험을 전했다. 당연하게 써온 단어 하나가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으로 다가왔다.

또 사범대에서는 술자리에서 술 게임으로 사용했지만, 차별적인 단어가 될 수 있는 특정 언어 사용을 지양하는 문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다른 학과 내 문화처럼 직접 그 학과에 속해 있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을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만나고, 전혀 몰랐던 타 학과의 문화를 듣는 것은 책 한 권에서 얻은 것 이상의 배움이었다.

책을 혼자 읽었을 때는 내 생각만이 전부였다. 하지만 토론을 통해 같은 책을 읽고도 전혀 다른 감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소정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독서 습관도 기르고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아직 접해보지 못한 학우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다.

신혜진 수습기자

tlsgpwls12345@naver.com

이번 축제도 모두 GRACIAS!

매년 학교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축제 기간이 찾아왔다. 학교는 무대 설치, 주말 꾸리기 등으로 분주하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평소보다 다채롭고 반짝이는 차림으로 앉아 있다. 학생들의 기대에 가득 찬 표정과 목소리, 발걸음이 학교의 분위기를 똥똥 띄워 덩달아 가까이 기분이 좋아진다.

나는 고등학생 시절 대학 생활을 상상할 때, 축제에 대한 로망이 그 어떤 것보다 컸었다. 그만큼 나와 많은 학생에게 대학 축제란 학교생활 중 가장 큰 이벤트이다.

이번 우리 대학 축제는 5월 말에 진행했던 작년 축제보다 약 3주 정도 일찍 진행된 덕분에 선선한 봄 날씨를 느끼며 즐길 수 있었다.

이번 연도 우리 대학 축제의 아티스트 라인업을 확인했을 때, 다양한 장르의 유명한 가수들로 구성돼 있어 동기들과 축제 전부터 기대에 가득 차 있었다. 다양한 장르를 좋아하는 나는 밴드, 케이팝,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어서 매우 만족했다.

화려한 라인업과 함께 다양한 축제 음식들이 축제의 맛을 더해줬다.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두 공간이 마련돼 있었는데, 학생 주말은 각 학과 학생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어 동기, 선배들과 안면을 틀 수 있었고, 공연장이 가까워서 한눈에 보아서 앉아서도 충분



▲6일 지역민과 재학생이 공연을 보고 있는 모습

히 무대의 열기가 느껴져서 좋았다.

푸드트럭 존은 모든 인원이 입장이 가능해서 타 학교 친구들과 잠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 두 공간 모두 ▲순두부 찜뽕탕 ▲초밥 ▲스테이크 등의 다양한 음식이 준비하게 준비돼 있어, 일행과 다양한 음식을 나눠 먹는 재미가 있었다.

아티스트의 공연 시작 전에도 즐길 것들이 많았다. 축제 입구 구역에 있는 포토 부

스에서 친구들과 학교 MD를 착용하고 사진을 남기고, 입구 왼편에 있는 부스 구역으로 가서 간단한 체험을 하면서 즐겁게 공연을 기다릴 수 있었다. 그중에서 빗썸 부스에서 키캡 키링 만드는 체험도 있어서 해봤는데, 원래 가지고 싶었던 아이템을 이 기회에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축제에 다녀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많은 인원이 있음에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점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질서 있게 공연을 본 학생, 지역민들 덕분에 축제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질서는 사전에 SNS를 통해 게시된 안전 매뉴얼과 일방통행 등의 확실한 통제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이전에 타 지역의 축제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통제 인원이 제 일을 하지 않거나, 관람객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불편한 경험을 하고 왔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 우리 대학 축제 현장에 큰 만족감을 느꼈다. 이러한 조치를 위해 스태프와 안전 요원, 경찰분들이 상주해 있었는데, 열심히 일해주신 분들 덕분에 안전한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는 생각에 감사함을 느꼈다. 이번 축제 현장을 체험하면서 즐거운 축제 경험을 위해서는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김없이 다채로웠던 구성의 축제였다. 모두 즐거운 2026년 GRACIA 축제가 됐길 바라며 이 기억을 가지고 남은 학기도 힘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박시연 수습기자

0128sieon@naver.com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첫 도약

문화 인프라와 청년 유출의 관계

지난해 11월, 더현대 광주의 시공사가 확정되면서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광역시에는 다른 특별·광역시 대비 문화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파가 청년들의 인구 유출로 이어진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의 문제가 아닌, 지역에 머물 이유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복합적인 문화 공간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광주의 모습을 기대함과 반대로 더현대 광주의 입점으로 문화적인 발전과 청년 유출을 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대립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오는 7월 1일 공식 출범하면서 지역 일자리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청년들의 눈에 크게 띄었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관광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적인 시설은 많이 부족하다. 광주



▲2029년 완공 예정인 더현대 광주 조감도 (출처: 무등일보)

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많이 불리는 지역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과 전시, 단기간 진행되는 행사·체험 등 운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체험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매년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같은 형식의 행사는 광주 시민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단순 반복'일 뿐, 흥미롭게 느껴지

기 어렵다.

또한 특정 시기에만 문화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 행사 기간을 제외하고 평상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늦은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활성화된다면 청년들뿐만 아닌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크게 인기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팝업

스토어'나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설 공간도 마련돼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콘텐츠와 함께 매니아층과 관람객의 즐거움을 주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문화 인프라의 발전이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만은 아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공간 제공이 아닌, 다양한 선택지가 공존하는 환경이다. ▲소규모 공연장 ▲독립 서점 ▲지역 기반 전시 공간 등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가 스며들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 이 말은 즉, 대형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형 시설 하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다양한 층위의 균형 잡힌 문화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에 흔하게 아는 문화 시설을 제외하고 다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청년들은 같은 콘텐츠보다 새로운 콘텐츠를 원하기 때

문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 개인마다 문화를 즐기는 차이도 분명하게 있을 것이지만, 지금 광주의 문화 인프라는 개인의 차이를 해소해 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현대 광주의 입점이 이러한 문제점을 환기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해답을 찾을 수는 없다.

대형 복합쇼핑몰의 입점은 분명하게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첫 도약이다. 그러나 그것이 청년 유출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 지역 청년이 머무는 도시는 단순히 소비할 공간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관계가 축적되는 도시다. 이번의 첫 도약이 광주가 머물고 싶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지, 그 답은 앞으로의 명확한 방향성과 신중한 선택에 달려 있다.

남대희 수습기자
ndaeh0823@chosun.ac.kr

마라탕 속 식중독 경고 배달음식 즉시 섭취하고 위생수칙 지키자

2018년 무렵부터 특유의 중독적인 매운맛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마라탕은 점심 메뉴를 고민할 때면 맨 먼저 언급될 만큼 학생들에게 익숙하지만, 최근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음식에서 식중독균이 다량으로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14일, 한국소비자원은 마라탕과 땅콩소스에서 식중독균을 검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가맹점 수 기준 20개 업체의 제품 40개를 조사한 결과, '춘리마라탕'의 마라탕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땅콩소스에서는 리스테리아균이 각각 검출됐다. '샹즈마라'와 '소림마라'의 경우 땅콩소스에서 리스테리아와 대장균이 함께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림마라의 땅콩소스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47배나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은 소금 농도가 높은 곳이나 건조 상태에서 저항성이 강해 식품에서 수개월 생존할 수 있는 균이다. 감염 시 평균 3시간 후부터 ▲구토 ▲설사 ▲복통 ▲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저온성 세균인 리스테리아는 ▲유산 ▲수막염 ▲



▲배달된 조리식품을 먹고 남은 음식은 즉시 냉장보관하는 모습

패혈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땅콩소스는 매장에서 제조한 뒤 별도의 가열 과정 없이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기온이 오르는 시기에는 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

소비자원은 곧 오게 될 더워질 날씨를 대비하고 안전한 음식 섭취를 위해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음식을 받은 즉시 포장 용기의 파손 여부와 오염 상태를 점검하고 바로 섭취하지 않거나 남은 음식은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보관했던 음식은 충분히 가열 후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 대학 인근에도 다수의 마라탕 전문점이 밀집해 있고 학생들의 이용 빈도가 매우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마라탕뿐만 아니라 모든 배달 음식이 부패하기 쉽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배달된 음식을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즉시 섭취하며, 위생 상태를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소스류들의 보관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즐거운 식생활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모두의 철저한 위생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신혜진 수습기자
tlsgpwls12345@naver.com



이달의 포토



봄날의 캠퍼스

추웠던 꽃샘추위를 지나 완연한 봄이 왔다. 삭막했던 나무들에는 어린 잎들이 나 부드럽게 흔들리고, 길모퉁이에는 작은 꽃들이 봄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땅에 숨어있던 생명이 소생하는 역동적인 시기에 학생들의 활력이 어우러져 캠퍼스가 더욱 생동감 있게 느껴진다. 우리 대학 내에는 다양한 꽃들과, 꽃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소가 있다. 하지만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봄을 즐겨야 하는 시기에 학생들에게 시험이라는 무게가 더해진다. 하지만 벚꽃의 진짜 꽃말은 '삶의 아름다움'이라고 한다. 모두 잠시 펜은 내려놓고, 아름다운 순간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박시연 수습기자
0128sieon@naver.com

교수칼럼

민주주의라 쓰고 독재라 읽는다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유행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 민주적 제도와 규범이 점진적으로 침식되고 반민주 세력은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고 있다. '민주 정권'이 법적 장치를 반민주적 목적으로 이용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비정상인 정상인 '뉴노멀' 민주주의 시대로 들어섰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민주주의의 위기 원인들과 공생하고 있다. 아노크라시, 인포크라시, 휴머노이드 로봇, 디지털 독재, 탈진실(Post-truth) 등이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이라면, 우리는 독재로 가지 않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바버라 월터는 내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징후, 혹은 요인으로 몇 가지를 지목하고 있다. 그중 첫 번째가 아노크라시(anocracy)이다. 완전한 독재(autocracy)도 아니고 민주주의(democracy)도 아닌 중간 상태를 일컫는 이 용어는 내전의 가능성을 매우 높은 정도로 예측한다.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서 바버라 월터는 “지금

은 유권자들 스스로가 독재를 탄생시킨다”고 쓰고 있다. 독재도 진화한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붕괴는 투표장에서 일어난다. '연성 독재'(soft despotism)'는 선출된 독재이다. 일단 합법적이다. 탱크와 곤봉이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결과이다. 위장술이 매우 뛰어나, 웬만하면 법이란 외투를 벗지 않는다. 국민 일부는 열성적 지지자이다.

『정보의 지배: 디지털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는 재독 철학자 한병철이 '정보'를 키워드로 삼아 그린 사회적 초상을 담은 책이다. 책의 주제이자 독일어판 원제이기도 한 '인포크라시(Infokratie)'는 저자가 새로이 발굴해 사용하는 개념으로, 정보 체제 내에서 민주주의(Demokratie)를 대체하고 있는 새로운 지배 형태를 뜻한다. 본래 민주주의의 정치적 공론장 형성에는 책이라는 미디어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대중 매체의 등장 이후 지배 형태는 텔레크라시와 씨어터크라시로 변질했으며, 여기에서 또 변화한 인포크라시의 형태를 띠게 된다.



김 병 록 교수
(법학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조와 가치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로봇이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구조와 시민 참여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될 수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급되면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으로 검토했던 전자민주주의나 사이버민주주의의 패러다임도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일정한 변용을 겪으며 새로운 형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디지털 독재는 정부가 정보기술

과 데이터를 이용해 시민의 행동, 언론, 표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체제를 말한다. 전통적인 독재가 경찰, 군대, 검열로 이루어졌다면, 디지털 독재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CCTV, 인터넷 검열, SNS 분석 등을 활용한다. 이는 '무력'보다 더 조용하고, 더 철저한 통제를 가능하게 만든다. 시민은 감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결국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참여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탈진실(Post-truth)은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주장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에는 진실 여부보다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감정이 우선시되며, 때로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허위 사실이 진실처럼 주장되기도 한다. 탈진실 현상은 인간이 지식정보와 관계 맺는 방식이 기존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데서 기인한다. 과거와 달리 인간이 외 지적 활동을 하는 도구가 등장해 인간의 정보 이용 과정에서 주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아노크라시, 인포크라시(AI/휴머노이드 포함), 디지털 독재, 탈진실, 편향된 미디어 등이 얹혀 민주주의의 복합 위기를 만들고 있다면, 대응도 다층적이어야 할 것이다. 선출된 권력에 의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합법적 독재인 아노크라시, 정보 체제 내에서 민주주의를 대체하고 있는 새로운 지배 형태를 뜻하는 인포크라시, 정부가 정보기술과 데이터를 이용해 시민의 행동, 언론, 표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체제인 디지털 독재,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주장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인 탈진실, 그리고 이것을 부추기는 편향된 미디어 등이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라 쓰고 독재라 읽는다'는 의미이다.

서 석 대

왜곡될 여지

올해도 어김없이 각종 행사가 열리는 광주다. 5·18 캠퍼스 마라톤, 런 518과 같은 러닝 대회도 열렸다. 캠퍼스 마라톤은 지난달 5일 개최돼 전남대 '민주길'을 달리며 5·18 정신을 체험하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런 518은 이달 16일 전남대에서 시작해 5·18 민주광장까지 5.18km를 달리는 코스로 이뤄진다.

이런 행사와 더불어 지난달에는 조금 특별한 행사가 진행됐다. 5·18 청년서포터즈 '오월있다'는 지난달에 5·18민주광장과 전남대에서 '계엄잡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는 작년에 유행했던 '경찰과 도둑'을 5·18 민주화운동과 접목해 청년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이었다.

경찰과 도둑은 단순한 술래잡기 형식으로 작년 겨울, 온라인상에서 모집 글이 성행하며 모임이 활성화됐다. 하지만 현실 범죄 우려, 소음 분쟁 등의 사유로 놀이를 반기지 않는 여론도 상당했다. 처음 행사를 접했을 때 이런 놀이와 우리의 역사인 5·18민주화운동을 접목하는 게 조심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 수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은 모두가 알 것이다. 그런 상황을 '재현'하며 게임화할 때,



여정인 기자
duwjddls1022@naver.com

참여자들은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보다 술래에게 잡히지 않으려는 긴장감과 재미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다. '군인이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지'하는 믿음을 가졌던 당시 시민들의 처지에서 생각해본다면 이는 단순히 잡히지 않으려는 긴장감과 엄연히 다른 문제다.

'계엄잡기'는 도둑이 계엄군이며, 시민들이 경찰의 역할이 돼 계엄군을 잡으려 다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을 직접 마주하니 우려했던 것보다는 교육적 의미가 강했다. 역사에 대한 소개를 우선으로 게임은 청년들의 기억 방식이 됐다.

현대에서 재현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희생자들을 기리고 되새기는 일종의 기억 행위가 될 수 있다. '계엄잡기'역시 우려에 비해 역사를 다시 상기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형식이 '게임'인 이상, 재미의 요소가 강조될 가능성이 크며, 그 순간 취지와 다르게 왜곡이 일어나거나 경시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방향에 있다. '기억'을 위한 모든 방식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 오래 남는 기억을 위해 어떤 요소에 중점을 둘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수 습 일 기

나는 왜 펜을 드는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기사 제목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이 먼저인 것 같다. 나의 시작은 막연했다. 그저 내가 속한 이 학교가 조금 더 나은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 딱 그 만큼이었다.

세상에는 반드시 어둠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나는 그 어둠을 조금이라도 밝히고, 밝히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법학과에 진학했다. 정의를 탐구하고 쫓다 보면 언젠가는 어둠이 건널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어느 날 친한 형과 대화를 나누다 이런 말을 들었다.

“사회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면, 거기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 말 앞에서 나는 생각이 많아졌다. '내가 펜을 들어 기사를 쓰고 사실을 알려도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왜 펜을 드는가?'라는 근원적인 의문이 꼬리를 물었고, 광주의 역사 속에서 답을 만났다.

1980년 5월, 광주가 군부독재의 폭압에 피로 물들어갈 때 독일 공영방송 영상 기자였던 위르겐 힌츠퍼터가 있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어둠에 덮여갈 때, 누구도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을 거라 감히 확신하지 못



왕태운 수습기자
xodns0607@chosun.ac.kr

했었다. 하지만 그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외면하지 않았고, 그의 보도는 침묵하던 세상을 깨웠다. 그리고 결국 민주화라는 빛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었다.

나는 이 역사 속에서 다시금 언론의 힘을 믿는다. 비록 당장 세상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더디지만 결국 바른 사회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말이다. 여전히 사회의 어둠은 짙고 갈 길은 멀지만, 나는 언론의 힘을 믿고 싶다.

물론 누군가는 이 종이 뭉치를 가벼이 여기고 지나칠지 모른다. 그러나 확보는 사회와 대학을 같은 학우의 시선으로서 잇는 가장 정직한 기록이자, 우리 대학의 목소리가 모이는 광장이다. 비록 내 기사가 당장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지라도, 단 한 명의 학우에게 깊은 생각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작은 생각의 변화가 언젠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대한 원동력이 될 것임을 믿기에, 오늘도 멈추지 않고 글을 써 누군가에게는 작은 촛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누군가에게는 생각의 변화를 이끄는 바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날의 광주,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는가



광주의 5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 그날의 기억은 사진 속 과거에 머물러있지만, 이 시기엔 우리의 마음 한편에 있던 민주화 정신이 가슴을 울린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전남도청 앞에 모여 지켜내던 그날의 광주,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는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갔던 임의 흔적



▲체육대학 앞 故 이철규 열사 추모비

매년 5월, 우리 대학은 축제의 함성과 장미원의 향기로 가득 차지만, 캠퍼스 한편에는 여전히 시린 기억의 흔적이 남아 있다. 5월의 시간을 따라 걷다 발걸음이 멈춘 곳, 그곳에는 화려한 조명이 닿지 않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추모비들이 있다. 늘 우리 곁에 머물렀으나 미처 닿지 못했던 선배들의 이름을 하나씩 마주해본다.

▲김동수 (전자공학 78) 1980년 5월 27일 새벽, 시민군으로서 전남도청을 끝까지 지키다 산화 ▲류재을 (행정 96) 1997년 정권 투쟁을 주도하다 경찰의 진압 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운명 ▲이철규 (전자공학 82) 민주화 운동 주도 및 학내 민주화 및 사회 문제를 알리기 위해 민주조선을 창간 후 교지 내용을 문제 삼아 지명수배받고 수배중이던 밤 경찰의 검문을 받고 실종 이후 1989년 5월 10일 수원지에서 의문사 ▲김학수 (산업공학 85)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을 주도하다가 과로로 투병 중임에도 5·18 10주기 시위에 참석해 시위 중 경찰의 최루가스를 흡입하고 합병증으로 1990년 6월 6일 운명.

차갑고 거친 추모비는 이름 석 자와 생전에 남긴 흔적을 오롯이 기억하고 있다. 그 흔적은 역설적으로 그날의 함성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증명한다. 이 추모비들은 단순히 과거를 박제한 돌덩이가 아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대학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내일을 포기했던 이들이 지른 희생이다. 5월의 장미 향기보다 더 짙었고, 축제의 열기보다 더 뜨거웠을 그들의 청춘을 기억하는 일,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임을 위해 행진하는 일일 것이다.

왕태운 수습기자

xodns0607@chosun.ac.kr

민주화의 발자취를 기록하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1층 전시실

'기록'이라는 정의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 사진으로서의 기록과 글로 남긴 기록, 그리고 마음 한켠에 자리잡은 기록이 있을 것이다. 5·18 민주광장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는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이하 기록관)이 있다. 그곳에선 5월의 기억 조각들이 한 곳에 모여 누군가 꿈꾸었던 미래를 만나 볼 수 있다.

5·18 민주화운동은 2011년, 5·18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돼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프랑스혁명 등과 더불어 인류사에서 기념해야 할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기 이르렀다. 기록관에 방문하면 우리가 평소 접할 수 없었던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기록물들을 직접 볼 수 있다.

기록관은 ▲지하 1층의 VR 체험존 ▲1층부터 6층까지 5·18 민주화운동 전시실 ▲7층에는 대관 시설이 있다. 각각의 전시실에는 ▲당시 자료들 및 영상 ▲기획전시 ▲자료열람실 ▲기록물을 보존처리하는 공간인 수장고를 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 공지된 시간에 따라 전시 해설과 함께 더욱 생생한 관람이 가능하다.

기록관은 매주 월요일의 정기휴무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 09시부터 18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5월의 기록관은 이달 11일과 18일 휴관일에도 전시실이 개방된다. 18일 당일 운영시간 또한 기존 18시에서 20시로 연장된다. 전시 관람을 통해 그날의 발자취를 따라 1980년 5월의 광주를 경험해보는 것은 어떨까.

남대희 수습기자

ndaeh0823@chosun.ac.kr

가장 용감했던 여성들이 모인 곳, 오월어머니 집



▲양림동 오월어머니집

양림동 근대 역사 문화마을에서 조금 들어가면 오월어머니집을 볼 수 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관장님과 관리인분들이 환한 얼굴과 목소리로 반겨줬다. 처음 온 낯선 방문객에게도 부모님처럼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그 온기, 건물의 분위기가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았다.

오월 어머니 집은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자식을 잃거나 남편을 잃은 여성들, 가족을 찾으러 갔다가 같이 민주화를 외치던 여성들, 자신의 형제자매가 피해를 본 여성들이 모여 만들어진 단체이다. 창립 당시에는 120-130명의 회원이 활동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분이 세상을 떠나거나 병원에 입원해 현재는 70-80명의 인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건물은 1층과 2층으로 구성돼 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오월어머니집을 소개하는 공간, 회원들이 모여서 요가하거나 수업을 듣는 공간이 있다. 2층에는 회원들을 위한 그림 치료 수업을 통해 탄생한 작품들이 가득 전시됐다. 매년 '그림 농사'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이 수업에서 회원들은 그림으로 자신이 오래 쌓아둔 슬픔, 분노와 희망을 캔버스 위에 표현한다.

이곳의 활동은 어머니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 복지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어머니들의 증언을 채록하고 단체활동 사례를 기록해 출판물로 엮는 사업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면 주먹밥이라는 상징이 떠오른다. 1980년 5월, 서로를 살린 그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주먹밥 도보 투어 행사를 진행하며 그 온기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이달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오월어머니집 앞에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신혜진 수습기자 t1sgpwl512345@naver.com

사설

‘달콤한’ 민주주의(Sweet Democracy)

최근 우리 대학의 학교법인 이사회가 올해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5기 정이사회 이사진을 선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9명 정원의 법인 이사진 가운데 1회 연임한 김이수 이사장을 비롯하여 임동운 이사와 정병준 이사가 퇴임하고, 기존 정이사 가운데 신윤숙, 김선아, 정재웅 등 세 명의 정이사와 개방 이사였던 이근우와 박미경 등 두 명의 이사가 연임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말기 출범한 제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안병욱 전 가톨릭대 교수가 정이사로, 고길석 광주센트럴 병원 대표원장과 김규탁 장흥우리병원 이사장이 개방 이사로 새롭게 이사진에 합류하고, 나머지 공석인 1인의 이사는 차기 이사회에서 추가로 선출할 예정이다.

그런데 법인 이사진 선출 과정을 둘러싸고 학내에서 ‘민주주의’ 논쟁이 벌어졌다.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 4개 구성원 단체가 참여하는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가 입장문(4.30)을 통해 ‘국립대학 법인 전환을 위한 공익형 이사제 도입’을 위해 대자협과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이사진을 구성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더 나아가 공석인 정이사 1인은 대자협이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라는 요구도 제기하였다.

통상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권위주의 체제와 구분하거나 그 질을 평가할 때 우리는 얼마나 시민이 자신들의 대표를 자유롭게 공정하게 선출하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선거 민주주의).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얼마나 표현의 자유나 결사·집회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지(자유 민주주의), 얼마나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평등 민주주의), 정치 공동체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참여 민주주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속의가 이루어지는지(속의 민주주의) 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학교법인의 이사 선출 절차는 보편적인 민주주의 원리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 대학처럼 9인 정원의 이사회는 3인의 개방 이사를 선출해야 하며, 이를 위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인이 추천한 인사가 과반이 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더구나 2배수로 추천된 6인의 개방이사 후보 가운데 3인을 선출할 권한은 현직 이사진에게 있다. 우리 대학은 민립대를 자임하지만, 법적으로는 사립대이기에 법인이 사회가 대학 경영은 물론 이번 법인 이사진 개편 과정에서도 전권을 행사하였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회 임원의 임면을 포함하여 대학의 회계, 정관 변경, 교원 임용과 경영,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을 모두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학사 행정에 관한 권한은 총장에게 있지만, 총장의 임면권이 이사회에 있다는 점에서 대학 내에서 이사회의 권한은 가

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법인 이사진 재구성 과정에서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를 이사회가 모두 준수하였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히려 현행 정관에 따라 한 번 더 3년 임기를 연장할 수 있었음에도, 김이수 이사장이 구성원에게 약속한 것처럼 1회 연임을 끝으로 스스로 퇴진한 것은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이수 이사장은 2020년 정이사 체제로의 재전환한 이후에도 복귀를 시도하던 강현욱 전 이사장 측과의 법적 갈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23년에는 구경영진 측 추천 이사의 연임을 막아 우리 대학의 법인을 안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립대의 정체성과 대학 자치의 역사성을 고려할 때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기대하는 민주주의는 단지 사립학교법의 준수 여부에 그치는 것은 아니기 때

문이다. 특히, 조선대학교의 미래를 책임질 법인 이사회 구성과 같이 중요한 사안을 소수의 이사진만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면 구성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현직 이사진에게 차기 이사진을 선출할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우여곡절이 많았을 이사 선임 과정을 구구절절 구성원들에게 공개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이사 선임의 원칙에 대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의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으며, 구성원들에게 이사를 선출하는 속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얼마나 부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맛으로 비유하자면 대학의 민주주의는 쓴맛의 민주주의도 있고 달콤한 맛의 민주주의도 있을 것이다. 제5기 정이사회 선출 과정에서 나타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민주주의의 맛은 어떠한가? 과연 미래에는 달콤한 민주주의를 꿈꿔도 되겠는가?

데스크에서

유행 따라가기

“이게 요즘 유행이래” 올해 심심치 않게 들은 말이다. 2026년이 된 지 5개월이 된 지금, 벌써 몇 번째 유행이 지나간 줄 모른다.

작년 말 유행이 시작돼 올해 초 유행의 정점을 찍은 ‘두바이쫄쫄 쿠키(두쫄쿠)’가 있었다. 프랜차이즈까지 점령하며 각종 카페에 웨이팅 대란을 일으킨 유행 간식이었다. 카페가 아닌 일반 식당과 같은 곳에서도 판매하고, 재료의 가격이 폭등할 정도의 유행이었으나 한 달이 지나자, 인기는 사그라들었다.

그리고 봄이 다가오며 제철 음식을 이용한 ‘봄동 비빔밥’이 유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디저트 ‘버터떡’이 새롭게 떠오르다가 다시 추락세가 됐다.

숏폼 중심의 SNS 활동이 완연한 요즘 트렌드의 생명주기가 짧아졌다. 콘텐츠의 전파 속도도 빨라 유행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고, 유사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생산된다. 그렇게 단기간에 비슷한 콘텐츠가 도배되고 나면 소비자들은 새로운 것을 다시 찾는다.

우리는 왜 유행을 따라갈까? 유행은 하나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유행이 시작되면 “너 이



여 정 인 편집국장
duwjdlis1022@naver.com

거 해봤어?” 하는 물음이 들려온다. 유행을 따라가면 젊음의 아이콘이 돼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사람으로 비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아직도 안 해봤냐는 반응이 돌아온다.

다른 사람이 모두 아는 것을 모르면 소외감을 느끼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는 ‘FOMO 증후군(Fear Of Missing Out)’으로, 유행에 뒤처지는 것에 대한 공포 심리이다. 소속감이 가장 중요한 청소년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 때문에 유행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유행이 빨리 진행될수록 부작용도 크다. 재료 공급의 한계가 오며

가격이 치솟고, 관련 재료를 사용하는 타 분야에서도 피해를 본다. 낭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두쫄쿠가 유행했을 당시, 자영업자들은 소비자들 원하는 식감과 맛을 위해 정상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과감히 버리는 ‘폐기 영상’이 돌기도 했고, 유행이 끝난 후에는 남은 ‘악성 재고’의 처리 문제가 떠오르기도 했다.

유행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무엇이 남았는가. 빠르게 소비되는 시대에서 유행은 경험보다 ‘습관’을 남긴다. 유행이라는 소리에 반응하고, 식는 순간 쳐다보지 않는다.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 지나간 것은 자연스럽게 밀려난다.

이러한 사회에서 소비는 점점 가벼워진다. 깊이 고민하고 실행하기보다, 남들의 선택을 따라간다. 그렇게 습관처럼 반복되는 행위 속에 남은 것은 유행을 따라잡았다는 잠깐의 만족감과 허무함뿐이다.

유행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 일상이 됐고 당연한 것이 됐다. 무조건적인 유행 따라잡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유행에 치이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며 고민할 줄 아는 소비자가 돼야 한다.

날/말/퍼/즐

그	남	의	당	민
더	5	시	라	기
개	민	쫄	동	화
주	현	아	대	용
고	성	주	월	화

-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5·18 광주 ○○○운동
- 우리 대학 대동제 ○○○○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김성용 신부가 주임신부를 맡고있던 곳
- 광주에 입점할 예정인 복합쇼핑몰 ○○○광주
-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를 여러 명 고용하는 현상

지나호 정답

중간고사 화이팅

지나호 정답자

안우현(산업공학과·3)
이채이(무역학과·1)

※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지운 뒤 마지막에 남은 단어들을 조합해 답을 찾아 학과, 학번, 학년, 이름, 핸드폰번호와 함께 5월 31일까지 chnews21@daum.net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 발표는 다음 호 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개별 통보를 통해 스타벅스 교환권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번째 장미

장미주간

| 조선대학교 개교 80주년 |

일시: 2026. 05. 14.(목) ~ 05. 17.(일)

장소: 조선대학교 장미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